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김 화 순**

I. 서론

II. 본 연구의 관점 및 연구문제

III. 북한내 노동이동 경로분석

IV. 탈북결정요인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주민의 '노동이동'이 탈북현상의 중요원인 중 하나라고 가정하고, 탈북이주현상을 국제이주이론에 비추어 검토한다. 특히 식량난민 이후 새로이 등장한 '직행과 탈북이주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탈북과정을 노동이동의 맥락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북한사회경제를 구획하는 공식/비공식, 시장/국영부문의 네 가지 영역을 기본축으로 하여 직행과 탈북이주민 23사례를 성별/일자리유형별로 여성 11사례, 남성 12사례로 나누어 북한에서 노동이동의 흐름과 탈북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세 가지이다.

첫째, 북한 공식부문 국영경제(Ⅰ)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공적시장경제부문(Ⅱ), 비공식국영경제(Ⅲ), 비공식 시장경제(Ⅳ)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남녀별로 다른 행동패턴을 보였다.

둘째, 북한근로자는 자발적 노동이동 유무에 따라 집단노동참여유형과 개인이익추구유형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또, 집단노동참여형은 상향이동여

부에 따라 다시 경력추구형, 직업유지형으로 분화되었으며, 개인이익추구형은 이동선택지에 따라 다시 장마당형, 정권기관형, 기업활용형으로 분화되면서 총 다섯 개의 노동이동 유형이 도출되었다.

셋째, 각 노동이동 유형별 탈북사유를 분석한 결과, 집단노동참여유형의 경우 탈북자가족이나 친지 이기에 당국으로부터 받은 감시, 비사회주의 행위로 인한 신변불안, 본인과 가족의 진로장벽, 북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 등이 탈북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개인이익추구형의 경우에는 집단노동참여유형과 동일한 이유 외에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탈북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로 미루어 북한에서 노동이동 경험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나 자신감을 형성함으로써 탈북을 촉진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주제어: 노동이동, 탈북, 북한주민, 직행 탈북이주자, 탈북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0428).

**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

“앉아있는 뚝뚝이보다
돌아다니는 머저리가 낫다.”
(북한속담)

I. 서론

2016년에는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뜨거운 공방들이 벌어졌다. 그 해 4월에는 총선 직전 북한음식점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이례적 공개발표가 있었는데, 이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북한주민의 탈북을 권유하기도 하였다.¹ 지난 정부는 북한주민의 탈북과 ‘북한붕괴론’을 상호연계하여 국민들의 안보경계심을 일깨우는데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의 북한주민 탈북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를 곧 북한체제 붕괴의 전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과거 고난의 행군시기 수 십, 수 백만 명의 북한주민이 국경을 넘어 탈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몇몇 고위급인사의 망명이나 북한주민의 탈북을 북한체제의 급변사태나 붕괴의 전조로 간주하는 해석은 적절치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탈북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탈북현상’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의 맥락과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먼저 탈북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는 게 시급하다. 지난 20여 년간 탈북자 국내 정착에 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탈북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으로 탈북의 원인규명은 엄중한 학문적 검토를 요한다.

본 연구는 이같은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여 북한주민의 지속적인 탈북의 원인을 북한체제의 변동과정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노동행위자들의 ‘노동이동(labor mobility)’과 관련하여 검토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탈북했던 북한주민들 중 일부는 한국에 입국했지만 상당수는 중국에서 식량을 구한 뒤에 북한으로

¹ 2016년 총선 직전인 4월 8일에 통일부는 북한음식점 종업원집단탈북사건의 경위를 공개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같은 이례적 행위는 북풍을 위한 기획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같은 탈북사건 ‘공개 기준’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 집단 탈북 관련 발표가 그간 정부가 지켜왔던 탈북 사실 확인에 대한 원칙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62661>> (검색일: 2017.6.1). 참조. 이같은 의혹에 대해 2017년 5월 29일 국회 청문회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답변은 “유독 식당 종업원 탈북 사례에서는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빠른 시간에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19238> (검색일: 2017.6.1.).

돌아가 버리거나 중국에 계속 거주 혹은 제3국으로 가는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했다. 국내에 정착했던 탈북주민 중 상당수가 불법적 방법으로 해외로 나가 망명을 신청하면서 국제적인 물의를 빚었다. 식량난민이나 식량위기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체류해온 식량난민들을 제외한 집단, 즉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내부에서 한국을 목적지로 하여 이동하기 시작한 직행탈북이주자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2000년대 이전 식량난 시대에는 탈북사유가 아주 단순하고 자명했다. 미증유의 기아사태는 북한주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두만강을 건너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된 이후에 식량난 시대와 비교하여 생활여건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탈북규모는 계속 증가해왔다. 1990년대의 북한의 식량위기는 수많은 식량난민들을 배출하였으며 고난의 행군시기 식량을 구해 국경을 넘었던 북한주민의 탈북행위는 그 이후 20여 년 동안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탈북이주의 흐름을 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김정은 정권의 등장이후 국경감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 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조종간 국경을 넘어가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노동이동(labor mobility)’²이란 노동력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자발적 교환을 촉진하며 노동배분을 통해 근로자들과 소비자들 모두의 최대만족을 달성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정의되며, 시장경제에서는 지역간 산업간 노동력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³ 반면에 기업의 노동력비축경향과 노동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만성화되었던 현실사회주의 명령경제제도 하에서⁴ 노동이동은 최대한 억제되었다. 직장을 ‘제2의 집’으로 여겼던 소련에서 이직자는 도덕적으로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비난받았으며, 노동력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직장을 이직하면 사회보장서비스를 제한하기도 하였다.⁵

² 노동이동(labor mobility)이란 근로자들의 지역간 이주(migration)나 산업간 이동(inter-industry mobility), 직종간 이동(occupational mobility), 직업간 이동(job mobility) 및 기업간 이동(inter-firm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직업간 이동과 직종간 이동은 근로자가 생애경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일기업 직업상 상향 이동(upward mobility) 및 전직에 의한 직업상의 상향 이동을 포함한다. 또한 노동이동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일어나는 자발적 노동이동과 사용자의 강제에 의해 일어나는 비자발적 이동으로 나눌 수 있다. Ehrenberg, Ronald G., and Robert S. Smith, 한홍순·김중렬 역, 『노동경제학』 (서울: 교보문고, 2003), p. 357에서 재인용.

³ 위의 책, p. 357.

⁴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211~216.

⁵ 이상준, “러시아 시장개혁과 노동시장의 형성: 노동력의 이동과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통권 104호 (2004), pp. 98~99.

북한은 노동이동에 대해 소련보다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여 노동이동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북한노동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노동이동은 최대한 통제되고 국가의 계획에 의한 이동만이 인정되었다. 이때 노동자의 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했던 제도가 배급제도이다. 이러한 노동이동의 자발적 이동 금지의 관행이 깨지기 시작한 시기는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도가 일부 지역과 일부 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되면서 노동자를 강하게 압박하던 틀이 다소 느슨해졌으며, 무상의료체제와 무상교육제도의 실질적인 와해도 이러한 틀을 느슨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되었다. 국가가 배치한 직장을 떠나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 음성적으로 이동하는 북한주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는 보다 나은 소득을 찾아 시장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북한주민들의 ‘노동이동’이 탈북현상의 중요원인의 하나라고 가정하며, 탈북이주현상을 국제이주이론에 비추어 검토한다.

II. 본 연구의 관점 및 연구문제

1. 국제이주이론에 비추어본 북한주민의 탈북행위

“국제이주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이주의 결정요인, 과정 그리고 유형에 대한 연구이며, 둘째는 이주자들이 어떻게 이민을 받아들이는 사회에 통합되는가에 대한 정주(settlement)에 대한 연구이다”.⁶ 일반적으로 이주 연구(imigration studies)는 두 가지 연구범주를 모두 포괄하지만, 이제까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은 주로 두 번째 범주, 즉 이주 이후 한국에서의 정착과정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연구들이 ‘적응과 통합’이라는 베리(Berry)의 사회심리적응이론의 이론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왔으며, 2010년대 경부터는 디아스포라 연구나 다문화연구, 한국사회의 불평등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해가는 추세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정착지원정책이라는 실천적 현안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인 정착방안을 강구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식량난민과 달라진 새로운 탈북이주민 세대의 발생요인이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⁶ Castles, Stephen, Mark J. Miller, and Giuseppe Ammendola,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2013), p. 63.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첫 번째 범주의 연구 이주의 결정요인, 과정 그리고 유형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주결정과정, 즉 탈북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이주행위를 하기 전까지 북한주민들이 어떤 과정과 갈등을 거쳐서 탈북을 결정하기에 이르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북한내부에서 북한주민이 탈북을 결정하기에 이르는 과정을 노동이동을 매개로 다루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제이주이론을 검토한다.

카슬은 이주 연구관련 이론들을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분류한 바 있다.⁷ 첫째, 이주에 대한 신고전파로 대표되는 경제학적 이론들, 둘째, 역사제도적 관점, 셋째, 이주체제와 이주네트워크 접근, 넷째, 최근에 등장한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이론으로, 본고에서는 탈북현상 관련 선행연구가 있는 신고전파 이론적 접근과 초국가주의 이론을 검토한다.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경향은 국제노동력의 이주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견해인데, 이주를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⁸ 예를 들면, 배출흡인이론, 균형이론, 비용편익 이론과 같은 분석들이 행위이론의 범주에 속한다. 행위이론 중에서도 ‘경제학 신고전파 이론’은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이주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소득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강조한다. 이를 가리켜 배출-흡인이론(pull-push)이라고 하는데, 이주의 원인을 배출과 흡인관계로 설명한다. 배출요인은 인구증가, 낮은 생활수준, 경제적 기회의 부족, 정치적 억압이며 흡인요인은 노동수요, 토지 이용 가능성, 경제적 기회 및 정치적 자유다. 기본적인 모델은 비용과 편익 모델이다. 핵심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며 이주(immigration)는 일종의 투자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신고전파에서 이동을 설명하는 핵심개념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다. 인적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에서 이주(immigration)는 마치 교육이나 훈련처럼 일종의 투자행위로 보는데, 그 이유는 현재 사는 곳보다 이민 수용국가에서 더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로 인해 이주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북한붕괴와 대량탈북 이동을 가정한 연구들이 유행하였는데, 이들 선행연구들에서 ‘합리적 개인행위자가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순이익

⁷ 위의 책, pp. 52~73.

⁸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이 기대되는 경우 이동을 결정한다’는 신고전파의 이주이론⁹은 북한붕괴시 탈북자 규모를 추정하는 이론적 모형이 되었다. 예를 들어 구성렬은 북한의 붕괴, 즉 일시적으로 국경과 국가의 통제가 없어졌다는 가정 하에 남북한의 기대소득 격차를 독립변수로 하고 탈북하는 북한인구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하는 북한 인구의 규모는 28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¹⁰ 이 같은 북한붕괴를 가정한 북한주민 이동규모 추정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북한사회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경제학적으로 이주를 설명하려고 한 시도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주란 경제학적 분석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Castles 외(2003)가 설명하듯이, 이주는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가 수익에 대한 기대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배출-흡인 모형’은 이주라는 복합적이고 복잡한 현상 중에서 극히 일부만 설명할 뿐이다. 북한주민의 탈북을 이같은 비용-편익 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를 테면, 북한주민 중 어떤 사람들이 탈북자 혹은 이주자가 되는지에 대해 비용-편익모형은 매우 한정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신고전파가 보는 이주자들이란 적극적인 자기선택(self-selected)을 하는 사람들이지만,¹¹ 1990년대에 국경을 넘었던 탈북자들은 대부분 자기 선택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이주자들이 아니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던 취약계층들로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북한을 떠난 일종의 식량난민(food refugee)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탈북행위를 국경이동으로 파악한 연구자는 이금순(2005)¹²인데, 배출요인으로는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위협 외에도 경제난·식량난의 악화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탈북의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는 조선족 사회의 보호, 민간단체의 구호활동, 취업기회, 여성에 대한 수요, 가족결합, 대한민국 정부의 정착지원정책 등을 보았다. 이같은 ‘배출-흡인(push-pull)’ 모형은 과거 식량난 시기의 난민들

⁹ Borjas, George J., *Labor Economics*, 4th edition (Mc Graw-Hill Press, 2008), pp. 321 ~ 323.

¹⁰ 구성렬, 『통일이후 남북한 인구가동 전망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세미나, 1997. 11)은 다음 저서에 서 재인용. 선훈승 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p. 9.

¹¹ Chiswick, Barry R., “Are immigrants favorably self-selected? An economic analysis,” *IZA Discussion Paper*, No. 131 (2000), p. 181.

¹² 이금순, 『북한 주민의 국경 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을 설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새로이 등장한 직행탈북이주민들의 탈북원인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국경이동을 넘어 조중접경지역에서 중국, 남한, 북한, 조선족이라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단둥지역의 사회문화적 행태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이 탈북에 이르는 배경과 동기를 설명해주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¹³ 북한주민의 국경을 넘는 초국적 이주행위를 주목한다.¹⁴ 정병호¹⁵는 이처럼 국경과 법 규제와 감시를 뚫고 이루어지는 초국가적 활동을 ‘침투성 초국가주의 (penetrant transnationalism)’라고 개념화한다.¹⁶ 한국과 북한, 중국과 조선족이 만나는 특별한 문화적 접촉지대의 형성과 빈번한 경계선 넘기가 탈북행위로 발전한다는 가정은 직행 탈북이주자의 등장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직행파’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탈북이주자들의 발생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탈북이주민들의 이동은 조중접경지역을 출발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북한내부의 노동이동으로부터 시작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2. 본 연구의 시각과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새로이 제기하는 시각은 북한사회의 구조변동과정에서 활성화된 노동이동(labor mobility)의 맥락에서 탈북행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¹³ 강주원, “중조 국경도시 단둥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¹⁴ 박명규,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파주: 창비, 2012); 이희영, “(탈) 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pp. 355~393; 김성경, “북한이탈주민의 월경과 북·중 경계지역,” 『한국사회학』, 제47권 1호 (2013), pp. 221~253.

¹⁵ 정병호, “냉전 정치와 북한 이주민의 침투성 초국가 전략,” 『현대북한연구』, 제17권 1호 (2014), pp. 54~55.

¹⁶ 위의 이론적 접근외에 이주네트워크이론적 접근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탈북현장에서 탈북자 브로커의 등장은 탈북이 늘어난 한 계기로서 지목되어 온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주네트워크 이론이 기여할 수 있을 여지가 크다. 노동력의 국제이주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유력한 이론적 입장은 이주를 중위구조인 이주체제와 이주네트워크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주산업의 등장, 즉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 제도가 이주자와 제도간의 조정 역할을 떠맡기 시작한 점이 주목되어 왔다. 탈북과정은 주로 이러한 이주네트워크와 깊이 연계되어 움직이며, 탈북현장에서 브로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브로커와 같은 매개조직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족적 유대에 의한 연계망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보인다. 또한 브로커가 곧 탈북자 혹은 탈북자의 가족들인 경우가 많으며, 2000년대 이후 중국이나 한국에 온 탈북자들은 1990년대 탈북자들의 가족연계망을 통해 한국에 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탈북브로커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나 연구대상자 모두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워낙 큰 까닭에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개척분야로 남겨져 있다. 본고에서는 네트워크 이론적 접근의 유용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친다.

50여년 동안 북한사회에서 노동이동은 극도로 억제되어왔으나 고난의 행군 이전
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과 비공식부문은 노동이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동이동 역시 보다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국가가 제공한 직장보다 나은 일자리와 소득을 기대하
면서 국가에서 제공한 자신의 직장을 8·3노동자, 결혼퇴직, 병을 병자한 사회보장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벗어나 이동한다.

‘노동이동(labor mobility)’이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노동력의 집단적 흐름을
가리키는데, 경제활동참가(labor force participation)와 더불어 노동공급의 양과
규모를 결정해 주는 요소이다.¹⁷ 시장경제에서 노동이동은 생산활동에는 신축성을
제공하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도록 기능한다.
노동이동은 근로자들의 지역간 이주(migration)나 산업간 이동(inter-industry
mobility), 직종간 이동(occupational mobility), 직업간 이동(job mobility) 및 기
업간 이동(inter-firm mobility)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노동이동에는 동일기업
내의 직업상 상향이동(upward mobility) 및 전직에 의한 직업상의 상향이동
(upward mobility)이 있는데, 근로자 개인을 주체로 보자면, 시장경제하에서 근로
자가 생애에 걸쳐 경력(life career)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향이동(upward
mobility)을 지향하게 된다.¹⁸

북한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생애경력(life career)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직업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개인이 직장을 이동하거나 직업을 바꿀 수 없었으며 국가의 명령으로 직장
을 옮기는 것 외에는 직장을 이동할 수 없었다. 이같은 국가의 강압적인 직업 배
치제도가 강고하게 존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직장동료를 가족처럼 여기는 특유
한 사회경제 공동체적 분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시
장화가 진전되면서 남녀별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게 되었다. 국가정책으로 남녀별
로 다른 진로가 제시된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강제된 집단노동으로
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가구원의 생계유지를 책임지게 된다.¹⁹ 이에따라 여성들은

¹⁷ 직업이동이나 흔히 일자리 이동은 개인의 근로생애과정에서 일정한 조직내 그리고 조직 간의
이행을 말한다. Sullivan, Sherry E., “The changing nature of careers: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management*, Vol. 25, No. 3 (1999), pp. 457~484.

¹⁸ 전재식, “청년층의 취업형태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노트 02-1,
2002).

¹⁹ 김화순, “체제이행기 북한여성 노동의 존재양식,” 장지연·김화순, 『통일한국의 노동시장과 여성

남성과 다른 진로를 밟아가게 된다.

배급제도도 차등적으로 기능하면서 개인들의 활동이나 격차도 더욱 다양해진다. 개인의 사적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배급제도도 공식부문에 속한 기업인가 아니면 외국과의 합영기업인지, 시장에 속한 기업인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제 사회주의 근로자들도 주어진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면서 상향이동(upward mobility)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음성적인 노동이동행위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조한범 외(2016)²⁰은 Wallace(2004)의 구분을 기초로 북한사회의 경제를 다섯 개로 구분한 바 있다.²¹ 공식경제부문으로 국영경제(state economy)와 공식시장경제(formal market economy)를, 비공식경제부문으로 비공식 시장경제(informal market economy), 비공식 국영경제(informal state economy), 가계경제(household economy)이다.²²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이 연구는 조한범 외(2016)이 제시한 북한 경제활동 구분방식을 기본틀로 삼아 공적이익을 추구하는 공식부문과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비공식 부문간, 국영경제와 시장경제간 영역을 이동하는 탈북주민들의 노동이동 사례를 분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주민의 노동유형을 공식일/비공식일/이중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²³ 이 같은 일자리유형별 구분으로는 시장활동을 위주로 하는 정권기관들의 활동을 국영경제부문과 구분하기 어렵다. 탈북이주민의 북한내 노동이동의 맥락에서 탈북행위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고용 및 일·가정양립 연구』(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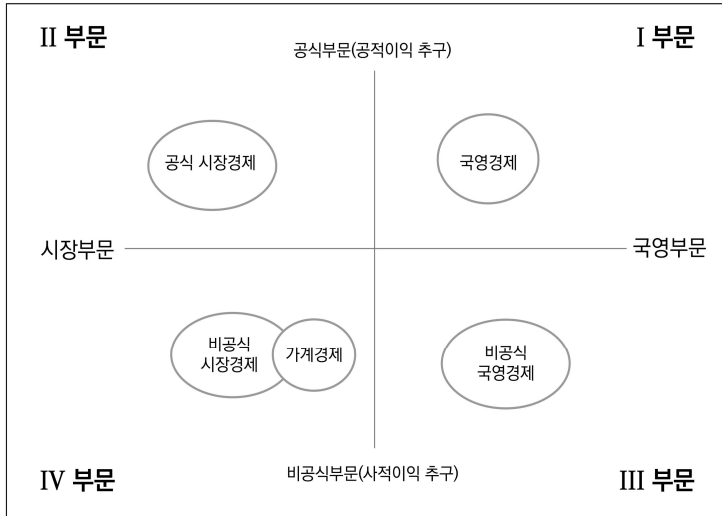
²⁰ 조한범 외,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23.

²¹ Claire Wallace, Christian Haerpfer and Rossalina Latcheva, *The Informal Economy in East-Central Europe 1991-1998* (Vienna: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2004), 위의 책, p. 5에서 간접인용.

²² 국영경제(state economy)란 협동농장, 국영농장, 군수산업, 선행부문과 기초공업(에너지, 석탄, 금속, 화학, 철도운수 등) 등을 가리키며, 공식 시장경제(formal market economy)는 종합시장을 통한 유통,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텃밭 경작, 시장판매를 위한 국영기업의 생산활동 등을 포함한다. 또, 비공식 시장경제(informal market economy)는 가내 생산(식품 및 옷 등)과 가내부업(미용 등 각종 기술 제공), 폐투기장 영업, 개인 숙박업 등이 포함된다. 비공식 국영경제(informal state economy)는 국영경제에 대한 사적투자 활동(개인경영, 생산, 판매) 등으로 구성된다. 가계 경제(household economy)는 자체 소비를 위한 텃밭 경작 등 자가소비용 생산활동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위의 책, p. 23.

²³ 김화순, “북한주민의 일자리 유형,”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1호 (2012), pp. 321~357; 김화순, “시장화시기 북한의 일자리유형 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pp. 79~112.

<그림 1> 북한 경제활동을 구분하는 기본 틀



출처: 조한범 외,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부문에 미치는 영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23.

I. [노동이동의 형태 및 지향성] 북한국내에서 북한주민의 노동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노동이동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 1-1. [직업가치] 북한에서 연구참가자는 살아오면서 어떤 직업가치를 추구하였는가? 돈인가 권력(직업지위)인가? 만약 직업지위를 추구했다면 어떤 경력을 추구했는가?
- 1-2 [경제사회적 배경] 연구참가자들이 자신의 직업생애에서 노동이동을 어떻게 했는가? (성별, 부문별, 일자리유형별)
- 1-3. [노동이동유형] 노동이동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II. [탈북 유형과 탈북결정요인] 북한주민의 노동이동과정에서 탈북에 이르게 되는가?

- 2-1. [탈북계기] 연구참가자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사건이나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 2-2. [탈북유형] 탈북행위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 2-3. 노동이동의 유형과 탈북 동기는 인과관계가 있는가? 즉 노동이동의 유형이 탈북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가?

본 연구에서 인터뷰 대상자로 <표 1>과 같이 남자 12명, 여성 11명 총 23명의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2016년 5월~7일까지, 2017년 3월~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례를 선정하여 녹취하였다.

<표 1> 남녀별/직종별/일유형별 연구참가자의 직종 및 일유형(최종직업기준)

직종	남자	일유형	여자	일유형
관리직/ 전문직	1. 행정간부(적대계층)	공식일	1. 군외화별이 부기	공식일
	2. 00사업소 의사(재일교포)		2. 국영기업 부기	
	3. 인민위원회(재일교포)		3. 도급간부	
사업자	4. 금광개발자	공식일	4. 밀무역상	비공식일
	5. 사진업자	비공식일	5. 미용사	
			6. 되거리꾼	
			7. 담배제조업자	
			8. 연유상	
사회단체	6. 직맹위원장	공식일	9. 여맹위원장	공식+ 비공식일
기술직	6. 운전기사	이중일		
	7. 기술자(단위책임자, 적대계층)			
노동자	8. 노동자 겸 세포비서	공식일	10. 편의사업소 반장	공식일
	9. 지방산업 노동자(적대계층)		11. 공장소속 개인사업자	비공식일
	10. 기술자(중국출신)	비공식일		
	11. 노동자(해외파견)	공식일		
	12. 현실체험자(탈북자친척)	비공식일		
합계	12		11	

본 연구는 직장간, 부문간의 경계를 넘는 자발적인 노동이동의 활성화가 탈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가정 하에 공장과 장마당으로 생애진로가 나뉘어지는 남녀별로 구분한 후에, 부문별(국영기업/공식국영기업/시장공식부문/비공식부문), 일유형별(공식일/비공식일/이중일 종사자)로 이들의 노동이동과 탈북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였다.²⁴

²⁴ 탈북행위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 참가한 23명의 사례로는 부족한 감이 있어 2012년도 1월~3월 사이에 필자가 조사책임자로서 인터뷰했던 직행파 30인의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다양한 탈북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Ⅲ. 북한내 노동이동 경로분석

1. 북한에서 여성 연구참가자의 노동이동 경로분석

이 연구의 여성 연구참가자들은 30대 1명, 40대 3명, 50대 5명, 60대 2명으로 총 11명이 참가하였다. 적대계층이나 교포출신은 상향이동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데 11사례 중 7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연구참가자 11사례 중 4사례가 적대계층에 속하였으며 부모가 외국(중국, 일본)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귀국동포 가정출신은 11사례 중 3사례였다. 적대계층으로는 사례 2(부기), 사례 3(간부), 사례 5(미용사), 사례 6(퇴거리꾼)이 있으며, 부모가 해외동포 출신인 경우는 여성사례 1(부기)과 여성사례 4(밀무역상), 여성사례 8(연유상)이 있다.

이들 일곱 명의 연구참가자들은 출신성분상의 문제로 진학이나 직장배치, 승진, 결혼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다.²⁵ 여성 연구참가자들의 노동이동 상황을 직종별로 기술하면 <표 2>와 같다.

여성사례 3(도급간부)는 연합기업소 간부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국가의 명령으로 공식 국영기업 부문(Ⅰ)에서 시장경제 부문(Ⅱ) 무역일꾼으로 이동하였는데, 중국과 무역을 통해 산하 기업을 정상가동시켰다.

전문가형은 부문간 노동이동을 하지 않았다. 여성사례 1(군외화별이 사업소 부기)역시 결혼 이후 직장은 바뀌었지만 동일한 공식시장경제의 영역에서 부기로 계속 일했다. 그녀는 미혼시절 부기로 일하다가 결혼퇴직한 이후 복귀하여 외화별이기업소에서 부기로 일했다. 특히 두 번째 직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차익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마다 수만 달러를 축재했다.

²⁵ 적대계층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며, 요행히 대학을 나와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주류사회에서 출세하는 데 제약이 있다. 귀국자 출신은 대학을 나오는데는 제약이 없지만 사회에 진출하면 유리천장에 부딪히게 된다.

<표 2> 북한내 여성 연구참가자의 노동이동

		첫 직업	대표직업	일유형	부문이동	혼인
전문 관리 직	사례 1 (40대, 중국출신)	국영기업 부기	군외화별이 부기	공식일	Ⅱ	기혼
	사례 2 (60대, 적대계층/ 군사자가족)	국영기업 부기	국영기업 부기		I (이동 X)	사별
	사례 3 (60대, 적대계층)	도급 간부	도급 간부		I → Ⅱ	기혼
개인 자영 업	사례 4 (30대, 중국출신)	유치원 교양원	밀무역상	비공식일	I → Ⅳ	기혼
	사례 5 (50대, 적대계층)	도로수리공	미용사		I → Ⅳ	별거
	사례 6 (50대, 적대계층)	노동자	되거리꾼		I → Ⅳ	기혼
	사례 7(40대)	담배공장 노동자	담배제조업자		I → Ⅳ	기혼
	사례 8 (50대, 일본출신)	농장 기술직	연유상		I → Ⅳ	기혼
노동 자	사례 9(50대)	지방산업 노동자	여맹위원장+장사	이중일	I ↔ Ⅳ	사별
	사례 10(50대)	농장원	편의사업소반장+장사		I ↔ Ⅳ	사별
	사례 11(30대)	합영기업 노동자	국영기업 간판 비공식일	공식일	I → Ⅳ → Ⅲ	사별

※ I ~ Ⅳ부분은 <그림 1>을 참조할 것. I 부분은 공식 국영경제, Ⅱ부분은 공식시장경제 Ⅲ부분은 비공식 국영경제, Ⅳ부분은 비공식시장경제임. I ↔ Ⅳ는 직함을 가지고 비공식 시장경제를 오가는 이중일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노동자들 중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비공식일(별이)을 병행하기도 하는데 (I ↔ Ⅳ), 여성사례 9(여맹위원장)과 여성사례 10(편의사업소 반장)이 이에 해당한다. 여성사례 9는 처음에는 국영경제에서 일하다 결혼 이후에 사회단체 간부(여맹위원장)로 공식직위를 가지고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소득원인 장마당일을 병행하였다. 사회단체 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두 가지 일을 병행한다.

개인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여성들로 북한여성들은 주로 결혼전에는 공식직업을 배정받아 일하다가, 결혼이후 가계를 책임지는데 여성참가자 열한 명 중 다섯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여성사례 4~8). 공식 국영경제부문에서 일하다가 비공식시장경제 부문으로 이동한다(I → Ⅳ).

기업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례 11(철강판매사업)은 처녀시절에는 공식직장(I 부문)에 다니면서 사회주의청년동맹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결혼한 이후에는 시어머니의 지도를 받아 장사를 하였다(IV부문).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는 다시 국영경제 영역(III부문)으로 이동하여 철강판매사업을 하였는데, 그녀는 국영기업의 이름을 빌리기 위해 기업측에 돈을 100달러씩 매달 납부하였다.

2. 북한에서 남성 연구참가자의 노동이동 경로분석

열두 명의 남성 연구참가자들의 부문별 노동이동 결과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관리직(남성사례 1~3)은 국영경제부문을 벗어나 이동하지 않으며, I 부문(국영경제)의 공장기업소 내에서 상향이동을 하거나 수평이동을 하는 양상을 보인다.

개인사업자(남성사례 4, 남성사례 5)로 일하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국영경제 영역에 속한 돌격대나 2경제 산하 공장에서 첫직장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기관의 워크를 받아 금광을 개발하는 일이나 사기업 같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시장경제활동 영역으로 이동한다. 즉, I 부문 국영경제에서 III부문 공식시장경제 부문으로 이동하였다.

기술자들(남성사례 6~7)은 다른 부문으로 완전히 이동하지 않고 I 부문(국영경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틈새시간을 이용하여 IV(비공식 시장경제)를 잠깐씩 오간다. 예를 들어 전자기술자(남성사례 7)은 직장에 다니면서 저녁시간에 개인의 집을 방문하여 TV 등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마찬가지로 운전기사(남성사례 6)역시 기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회사차를 이용해서 틈틈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제품을 운반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남성노동자들의 이동양상은 여성보다 다양하다. 12사례 중 5사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는데(남성사례 8~12), I 부문(국영경제)에 속한 공장 기업소에서 이동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합법적 혹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나가기도 한다. 또, 고등중학교 졸업 이후 아예 공장에 적만 걸고 밀수를 하는 현실체험자(북한식 인턴)도 존재한다. 이처럼 남성 연구참가자들의 북한내 노동이동을 보면, 공식국영경제부문을 출발지로 하되, 여성보다 훨씬 다양한 방향으로 멀리 이동한다. 관리직은 국영경제부문내에서만 이동하며 타 부문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남성사례 1~3). 기술직 역시 I 부문(국영경제)에 강하게 긴박되어 있어 잠시 IV부문(비공

식 시장경제)에서 돈을 벌지만 I 부문(국영경제)을 벗어나지 않고 일한다. 사업자들은 I 부문(국영경제)에서 III부문(비공식 국영경제)으로 이동하여 금광개발, 사진업과 같은 사적경제활동을 활발하게 벌인다. 노동자들은 한 직장에서 평생 이동을 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남성사례 8)이 있는가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멀리 해외까지 이동(남성사례 10, 11)하기도 한다. 합법적으로 선발되어 해외에 파견되거나(남성사례 11), 불법적으로 중국에 취업하기도 한다(남성사례 10). 그런가 하면 아예 직업영역에 들어가지 않고 소속 공장에 가끔 돈을 내면서 현실체험자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남성사례 12).

<표 3> 남성 연구참가자의 북한내 노동이동

직종	직업	일유형	첫직업	탈북전 최종직업	부문 이동
관 리 직	1. 행정간부(적대계층)	공식일	노동자	부지배인	I (공장내 상향이동)
	2. 의사(재일교포)		병원 의사	위생검역소 의사	I (기업소간 수평이동)
	3. 인민위원회 부원 (재일교포)		시급 위원회	시급 위원회	이동없음
사 업 자	4. 금광개발사업자	공식일	금광개발 (도급 돌격대/8.3노동자)	군소속 외화벌이 원천지도원	I→Ⅲ
	5. 사진업자	비공식일	사진업 (2경제/8.3노동자)	군인상점산하 도정사업	I→Ⅲ
기 술 직	6. 운전기사	아중일	지방산업 공장	지방산업 공장	I (+Ⅳ)
	7. 기술자(적대계층)		연합기업소 노동자	연합기업소 단위책임자	I (기업내 승진)+Ⅳ
노 동 자	8. 노동자 겸 세포비서	공식일	00호산하 사업소 노동자		I (이동없음)
	9. 노동자(적대계층)		지방산업노동자		I (이동없음)
	10. 기술자(중국교포)	해외/ 비공식일	연합기업소	중국 공장에 노동자 취업	I→Ⅳ
	11. 노동자	해외/ 공식일	대외건설사업소	러시아에 취업	I→Ⅳ
	12. 현실체험자 (탈북친지)	비공식일	밀수(현실체험자)		Ⅳ
합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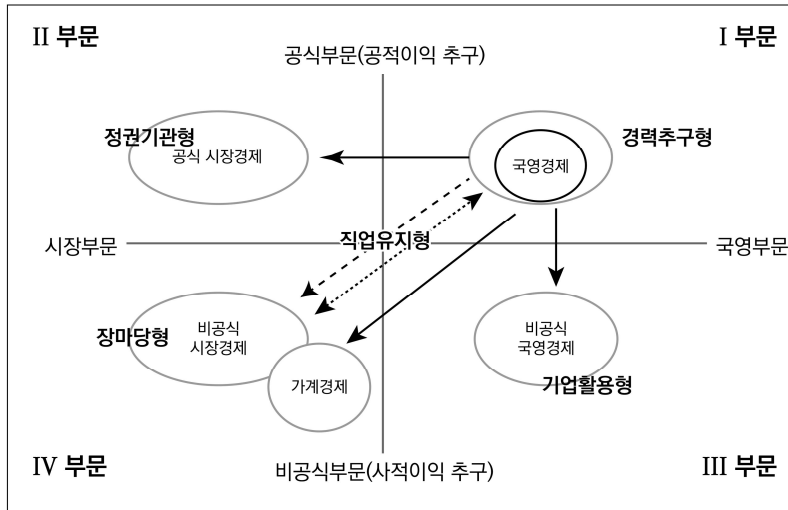
※ 회색은 출신성분이 적대계층이거나 부모가 중국 혹은 일본교포출신인 경우이다.

3. 노동이동의 유형분석

직행탈북이주자 남성사례 12사례, 여성사례 11사례 총 23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한주민들은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고 전부가 공식부문 국영경제에 속한 영역(Ⅰ)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식시장경제부문(Ⅱ), 비공식 국영경제(Ⅲ), 비공식 시장경제(Ⅳ)영역을 향해 마치 부채살처럼 퍼지며 이동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물론 이동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이들은 부수입이 좋은 직업직위를 가진 경우이다.

노동이동의 방향은 공식 국영경제(Ⅰ)내에서 관리자형을 제외한 다른 사례들은 공적 시장경제부문(Ⅱ), 비공식국영경제(Ⅲ), 비공식 시장경제(Ⅳ)영역을 향해 이동한다(Ⅰ→Ⅱ, Ⅰ→Ⅳ, Ⅰ→Ⅳ→Ⅲ, Ⅰ→Ⅲ). 이처럼 이동하는 이유는 당간부나 행정간부를 맡아 뇌물을 받는 극소수 외에는 국영경제 영역에 속한 근로자들은 생활비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은 생계유지가 가능한 Ⅱ, Ⅲ, Ⅳ 부문들을 향해 이동한다.

<그림 2> 노동이동의 방향 및 유형



북한주민의 노동이동유형은 ‘집단노동참여형’과 ‘개인이익추구형’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다음 <표 4> 참조).

<표 4> 북한주민의 노동이동 유형

직종		남자	이동	여자	이동
집단노동참여형 (12)	경력 추구형	사례 1 행정간부	I 이동 안함	사례 2 연합기업소 부기	I
		사례 2 의사		사례 3 도급간부	I→II (국가 명령)
		사례 3 인민위원회 부원			
		사례 8 노동자 겸 세포비서			
		사례 9 지방산업 노동자			
		사례 11 러시아파견노동자			
	직업 유지형	사례 6 운전기사	I↔ IV	사례 9 여맹위원장	I↔IV
		사례 7 기술자		사례 10 편의사업소	
이익추구이동형 (11)	장마당 형	사례 10 중국취업(불법)	I→ IV	사례 4 밀무역상	I→IV
		사례 12 현실체험자	IV	사례 5 미용사	
				사례 6 되거리꾼	
				사례 7 담배제조업자	
				사례 8 연유상	
	정권 기관형	사례 4 금광개발업자(외화벌이)	I→ II	사례 1 외화벌이 부기	II
	기업형	사례 5 사진업자	I→ III	사례 11 철강판매업자	I→IV→III
합계		12		11	

‘집단노동참여형’에 속한 사람들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여 이동하지 않으며, 국가가 정한 위치에 남아 공동체내에서 인정을 받으며 생산노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주어진 직업질서를 따르면서 성실한 공민(公民)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당간부나 행정간부를 경력목표로 삼아 상향적 노동이동을 추구하는 ‘경력추구형’이 있는가 하면, 생산노동에 참여하면서 생계를 위한 별이를 병행하는 ‘직업유지형’은 노동자 기층을 형성한다.

‘개인 이익추구형’은 문자 그대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며 노동이동을 하는 유형으로,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장마당형, 기업형, 정권기관형의 세 가지로 나뉜다. 장마당을 터전으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장마당형’이 가장 많으며, 기업의 이름을 빌어 개인장사를 하는 ‘기업형’과 정권기관에서 와크를 받아 외화벌이를 하는 ‘정권기관형’이 있다.

보다 권력있는 직업지위를 추구하면서 상향이동을 하고자 하는 ‘경력추구형’은 I 영역 국영경제부문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²⁶ 관리직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이 유형에 속한다. 남성 관리직²⁷과 여성 전문직²⁸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향이동 혹은 수평이동을 하거나 아예 이동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켜나가되, 실리(돈)는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추구한다.

‘직업유지형(I ↔ IV)’은 국가가 배치한 직업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침에는 사회주의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출퇴근을 하지만, 저녁에는 비공식 시장경제 부문에서 별이를 하느라 바쁘다. 경력개발형들이 앞에 나서 지휘하는 사람이라면, 직업유지형은 그 뒤를 묵묵히 받쳐주는 사람들이다. 직업유지형의 대표적인 직업은 기술직이나 사회단체 관리자이다. 이들은 권력있는 자리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직업지위를 지켜 사회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현재 북한 공장기업소 체제가 이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들의 숨은 헌신이 저변에 깔려 있다.

‘개인이익추구형’ 중 양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역시 ‘장마당형(the jangmadang type)’이다. 이들은 비공식 시장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개인자영업자들로, 여성들이 대부분이며 IV부문(비공식시장경제)에 있다. 여성들은 주로 장마당을 주요공간으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다.²⁹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지탱해주지 않는다면 북한남성들의 “국가가 배급을 안 주지만 나는 생산노동에 참여한다”는 애국심도 유지될 수 없다. 8·3 노동자 비 등 소속공장기업소에 사례비를 매달 내고 시장활동에 참가하는 남성들은 보다 나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마약이나 CD 등 국가에서 금지한 물품에 손을 대는가 하면, 밀수를 하거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해외노동자로 진출하기도 한다.

‘기업활용형(the corporate utilization type)’은 ‘장마당형’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유형인데 탈북이주자들 중에서 드물게 발견된다. 이들은 국영기업(혹은 정권기관)에 일정금액을 내거나 이익을 나누어주고 기업의 명판(이름)을 빌어 국가의 강력한 규제를 피해 시장활동을 한다. 이들은 III부문(비공식국영경제)에 있으며, 이번 연구에는 남성사례 4(금광개발업자), 남성사례 5(사진업자), 여성사례

²⁶ I부문, 남성사례 1~3번, 여성사례 2번.

²⁷ 1~3사례, 부지배인, 시급간부, 의사.

²⁸ 연합기업소 부기, 사례 2.

²⁹ 이들 가족단위는 남편은 공장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고 아내는 장마당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면서 사회주의 대가정의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기본 동력이 된다.

11(철강판매업자)가 있다. 이들의 관심은 기업의 합법적 지위나 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안전하게 얻는데 있다.

‘정권기관형(the Party-State Agency type)’행위자들은 국가의 비준을 받아 무역활동을 한다. 이들은 외화벌이 기지를 차리고 군기관이나 각종 정권기관의 워크를 받아 일한다. 외화벌이 기지장과 부기가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다. 본 연구의 여성사례 1(군외화벌이 사업소 부기)과 여성사례 3(도급 무역간부), 남성사례 4(금광개발업자)가 이에 속한다. 이들 직업은 가장 많은 돈을 벌지만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일거에 범죄인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가장 높다. 실제로 여성사례 1(외화벌이 회사 부기)의 경우에는 부기를 하면서 중국대방과의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큰 재산을 만들었으나 사고로 인해 결국 탈북하였다. 여성사례 3(도급간부)의 경우, 전임자나 후임자 모두 감옥으로 갔으며 그녀 역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남성사례 4(금광개발업자)도 갑작스러운 회사간부들의 구속으로 인해 투자한 돈을 건지지 못한 채 탈북의 길을 걷게 되었다.

4. 이동의 자발성에 따른 노동이동 유형 분류

북한 내에서의 노동이동과정에서 부문 내 이동(mobility in sector)인가 아니면 부문간 이동(mobility between the sectors)인가,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자발적 이동(voluntary mobility)을 하는가, 국가의 명령에 의한 비자발적 이동(involuntary mobility)인지에 따라서 북한주민의 노동이동 유형은 ‘집단노동참여형’과 ‘개인이익추구형’으로 분화하게 된다.

집단노동참여형은 다시 내부에서 상향이동을 하여 권력있는 자리에 오르는가 아니면 직업을 그냥 유지하는 수준인가에 따라 간부로서 노동대중을 이끌고 가는 ‘경력추구형’과 기층에서 묵묵히 생산을 담당하는 ‘직업유지형’으로 나누어진다. 이같은 경력추구형 행위자들은 국가를 대리하는 간부(관리자)로서 기층노동자들을 지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중국 등과의 무역거래를 성공시키고 소속 조직의 노동자들에 대한 배급을 일부라도 보장하면서 국가가 부여하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이중, 삼중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회계나 기술력 등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은 관리자를 보조하는 일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집단노동참여형 행위자들은 왜 탈북하는가? 경력추구형들은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으며 성과를 올리기 위해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된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원리에 반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³⁰

직업유지형 행위자들은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한 직업지위(jib position)을 지키며 일하면서 몰래 부업을 하는 정도이므로 비교적 과오가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무상의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불만이 축적되고 북한사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하여 탈북을 선택하게 된다.³¹

한편, 개인이익추구형은 노동이동의 지점에 따라 다시 장마당형(the jangmadang type), 정권기관형(the Party-State Agency type), 기업활용형(the corporate utilization typ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화된다. 본 연구에 참가한 장마당형 행위자들은 화폐개혁으로 인한 몰락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간 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 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장사하면서 살고자 북한을 떠난다. 정권기관형은 국가권력기관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한 듯 보이지만 이들을 둘러싼 법기관과 권력기관들의 끝없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어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할 경우 단명하는 불안한 존재이다.³²

IV. 탈북결정요인

집단노동참여형 행위자는 자신의 가치를 공동체에 두며, 그들의 구호는 ‘국가가 배급을 안 주더라도 우리는 생산노동에 참여한다’이다. 이들은 ‘권력’과 ‘인정’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왜 탈북하게 되는가? 경력추구형은 관리자로서 리더십을 갖고자 하며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자 한다. 그런데 자신과 가족의 진로가 장벽에

³⁰ 여성사례 3(행정간부, 60대)은 국가의 돈을 착복했다고 생각되는 무역일꾼들을 본보기로 공개처형하는 일을 본 후 국가의 폭력은 그녀 자신에게 깊이 각인되었으며 이런 경험은 그녀를 깊이 변화시켰다. 다른 간부들이 그러하듯이 그녀도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는데, 만약 이 같은 사실을 언젠가 국가가 알게 된다면 그녀 역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으며, 일정한 시기가 오자 결국 탈북하기에 이른다. 특히, 간부들의 과오에 대한 국가의 잔혹한 처벌 등을 목도하게 되면 이는 남의 일같이 않게 생각되어 공포와 불안, 회의 등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에는 탈북에 이르게 된다 (2017년 3월 10일 필자면접, 행정간부).

³¹ “제가 30살까지만 해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저 당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밖에 없었어요. … 회의를 많이 느꼈지만 김정일이 죽으면 달라질지 알았죠. 그럼테 김정은이란 저런 인물이 등장했으니까 더 이상 기대할게 없구나. … 붕괴가 불가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내 살아서는 이 땅을 밟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떠난 사람이니깐.” (2017년 4월 30일 필자면접, 기술자, 남성사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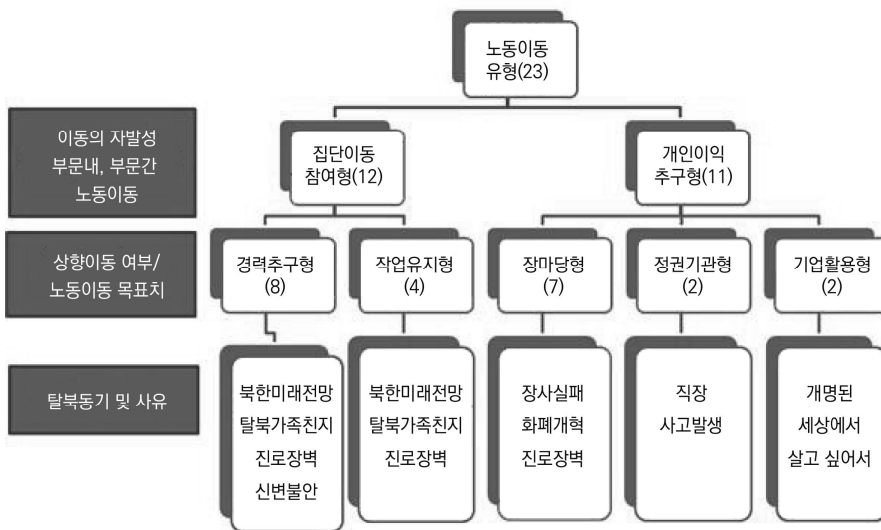
³² 그는 3년 이상 이 일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요. 사람들이 그거는 다 알고 있으면서 최대한 긴장하자. 내가… 최대한 긴장하고 탈미를 잡히지 말자 하면서도 잡히죠. 나는 10년, 20년 해먹을테다 영원히…하자 하다 잡히죠. 한방에… 참모랑 우리 과장이랑 하루 아침에 다 잡아갔어요. 다… 일을 그렇게 평소에 잘했는데 돈도 많이 벌고…마약도 조금 할 수 있고, 북한식으로 말하면 빵두 좀 할 수 있고, 성 녹화물도 조금 봤겠쎬. 한국드라마도 봤고. 그러다 다니가 한 방에 폭 갔쎬. 다…”(2017년 1월 21일 필자면접, 외화벌이 지도원, 남성사례 4)

부딪혔을 때 업무상의 과오나 정치사상적으로 의심받아 자신의 안전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공동체 자체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회의적일 때, 그들은 탈북을 선택한다.

‘직업유지형’이 탈북하게 되는 이유 역시 ‘경력추구형’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를 위한 노력이 무용하다고 느낄 때, 공동체의 미래가 없다고 느낄 때 탈북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력추구형과 같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 과오가 크지 않으며 광범위하게 기층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직업유지형’에게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두 유형 모두 자기 인식이나 정체성(identity)이 변해서 탈북한 것이 아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고 집단노동에 참여해온 자신의 노력이 부당하다고, 자신과 가족의 진로가 막히고, 앞으로도 공동체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해 탈북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개인이익추구형’ 행위자들은 북한내에서 노동이동을 하는 가운데 이미 가치체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달라진 돈의 개념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국가가 정해진 길을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자발적인 노동이동을 하면서 개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기업이든, 장마당이든 정권기관이든 가리지 않고 어떤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당당하게 추구한다.

<그림 3> 노동이동 유형별 탈북사유



‘개인이익추구형’들은 과거 식량난민세대들이 가졌던 ‘돈에 대한 양가적 태도’나 모호함을 이미 벗어났으며 자신의 경쟁력을 체험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체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과거 사회주의적 근로자로서 가졌던 집단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버리고 돈을 목표로 집단의 일원이기 보다는 한 명의 개인으로 경쟁하면서 세상을 헤쳐나가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을 한국으로 끌어당긴 요인(pull factor)이다.

1. ‘국가에서 벗어나기’: 집단노동참여형(the collective labor participation type)의 탈북사유

연구참가자들의 노동이동 경로분석 결과, 공동체에서 집단적으로 생산노동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과 자신의 이익추구를 우선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노동참여를 중시하는 집단은 보다 나은 지위를 추구하면서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경력추구형’과 별도 별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에서 배치한 위치에서 노동하는 것을 중시하는 ‘직업유지형’으로 나누어진다.

‘경력추구형(the career seeking type)’ 연구참가자들은 북한사회의 주류 혹은 리더로서 그들은 국가가 정한 자신의 자리를 지켜 상향이동하고자 노력했지만, 해외동포나 출신성분의 굴레, 가족친지의 탈북과 같은 문제는 그들과 가족의 출세에 결정적인 하자가 되었다. 경력추구형들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고 미래가 없으며 감시와 신변위협이 존재하는 환경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탈북하게 되었다.

‘경력추구형’이 중상층 이상이라면 ‘직업유지형(the job keeping type)’은 폭넓은 중하층을 이루면서 북한사회의 근간을 구성해온 사람들이다. 이들 집단노동참여형 행위자들의 탈북은 주어진 국가의 질서에 순응하여 성실하게 일해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 질서에 복종하지 않고 ‘국가에서 벗어나기(escaping from the State)’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문명한 세계에의 기대와 자유인의 등장: 개인이익추구형(the personal benefit pursuit type)의 탈북사유

개인이익추구형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며, 이를 위해 노동이동의 정착지로 장마당이나 기업, 아니면 정권기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장마당으로 이동하는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유지가 목적이지만, 기업활용형 행위자들은 기업 내에 들어가 어떤 방식으로든 장사를 하는 사업자들로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면서 보다 안전하고 쉽게 이익을 내고자 한다.

그러면 ‘개인이익추구형’ 행위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탈북에 이르는가? 2009년 화폐개혁으로 그간 모은 재산을 몰수당한 장마당세력은 국가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 보다 안전하게 장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 일부 장마당 행위자들은 탈북대열에 합류하기도 한다. ‘기업활용형’을 대표하는 한 여성사례 11(철강판매 사업가)은 결혼 이후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였고, ‘사람이라면 한번 문명한 세상에 살아보자’ 결심하고 급기야는 탈북하게 된다. 남성사례 10을 보면, 이런 자신감은 중국의 시장경제사회를 경험한 이후에는 더 커지는 듯 하다. 중국에서 2년간 불법취업을 했던 남성사례 10(기술자)은 시장경제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다.

저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신심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에) 온 겁니다. 저 사회는... 사회주의가 관리(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비정상이다. 자본주의가 되든지 사회주의가 되든지 할 것이다.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다. 미래가 없다. 중국에 있으면서 (그런) 확신이 생겼기에 .. 내가 가진 기술로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사회주의보다는 이런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나 스스로.³³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식량난민 이후 새로이 등장한 ‘직행 탈북이주자(‘Jikhaeng’ Migrants Escaping from North Korea)’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탈북과정을 노동이동의 맥락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탈북이주의 결정요인, 과정 그리고 유형에 대한 연구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북한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탈북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이주행위를 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피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 연구는 북한에서 북한주민의 탈북결정요인을 ‘노동이동(labor mobility)’의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체제의 구조변동과 이에 수반되는 북한내부에서의 노동이동이 새로운 ‘직행 탈북이주자(‘Jikhaeng’ Migrants Escaping from North Korea)’의 탈

³³ 2017년 6월 11일 면접, 기술자, 남성사례 10.

북의 발생배경이라는 가정 하에 북한사회경제를 구획하는 공식/비공식, 시장/국영부문의 네 가지 영역을 분석틀로 하여 직행과 탈북이주자 23명 사례의 노동이동 양상과 탈북원인을 분석하였다.

남녀 모두 첫 직장을 국영경제부문(the North Korean formal economy sector)에서 시작하지만 국가의 성별분리정책³⁴으로 남녀는 다른 경로를 걷게 된다. 여성 연구참가자들은 권력과 혈연이나 혼맥관계가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20대 초중반에 결혼한 이후에는 비공식 시장경제영역(the informal market economy sector, IV)으로 이동해 장사에 종사하였다. 반면에 남성들은 비공식 시장경제영역뿐 아니라 비공식 국영경제 부문(the informal state economy sector, III)이나 공식 시장경제부문(the public market economy sector, II)으로 향하는 마치 부채살처럼 뻗어나가는 형태의 노동이동의 흐름을 보였다.

남녀주민 모두 첫 직장은 공식부문인 국영경제(Ⅰ)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시장경제가 혼입되어 있는 영역, 즉 공적시장경제부문(Ⅱ)이나 비공식 국영경제(Ⅲ), 비공식 시장경제(Ⅳ)영역을 향해 이동하게 된다. 남녀를 막론하고 이같은 시장 혹은 비공식영역을 향한 이동지향성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당간부나 행정간부를 맡은 극소수를 제외한 국영경제 영역에 속한 근로자들은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노동자들은 생계유지가 가능한 시장경제 영역의 일자리나 벌이를 향해서 이동하게 된다.

‘집단노동참여형(the collective labor participation type)’의 핵심키워드는 ‘권력’과 ‘인정’이다. 경력추구형(the career seeking type)은 관리자로서 리더십을 갖고자 하며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자 한다. 그런데 공동체 자체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회의적일 때, 자신과 가족의 진로가 장벽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안전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들은 탈북을 선택하게 된다.

‘직업유지형(the job keeping type)’ 역시 국가를 위한 노력이 무용하다고 느낄 때, 희생해도 공동체의 미래가 없다고 느낄 때 탈북을 선택한다. 두 유형 모두 자기 인식(self awareness)과 정체성(identity)이 변해 탈북한 것이 아니다. 단,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고 사회적 집단 노동에 참여해온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하고 자신과 가족의 진로(career)가 막히고 앞으로도 공동체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해 탈북을 선택한 것이다.

³⁴ 북한남자에게 집단생산노동에의 참여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이지만 여성은 결혼 이후에는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 숙명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화순, “체제이행기 북한여성노동의 존재양식,” 장지연 외, 『통일한국의 노동시장과 여성고용 및 일·가정양립 연구』 참조.

반면에 ‘개인이익추구형(the personal benefit pursuit type)’ 행위자들은 북한 내에서 노동이동을 하는 가운데 이미 가치체계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돈의 개념에 대해 과거와 달리 사고한다. 국가가 정해준 길을 벗어나 집단에서 나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자발적인 노동이동(voluntary labor mobility)’을 통해 한 개인으로 살고자 한다. 그 길이 기업이든, 장마당이든 정권기관이든 가리지 않고 과거 사회주의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한국 이주도 이러한 노동이동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고 자신감을 보인다. ‘개인이익추구형’ 들은 과거 식량난민 세대들이 돈에 대해 가졌던 ‘양가적 심리(ambivalent mind)’상태를 이미 벗어났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인식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체화하며 과거 사회주의적 근로자로서 가졌던 가치를 버리고 한 개인으로 경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

서론에서 제기했던 사회의 체제변동과정에서 발생한 북한내 노동이동의 활성화가 탈북현상과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결론적으로 보다 나은 소득을 찾아 국영경제부문을 떠나 시장을 지향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동하는 북한주민들의 노동이동은 탈북현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식량난민 이후 새로이 등장한 ‘직행파 탈북이주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탈북과정을 노동이동의 맥락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북한사회경제를 기획하는 공식/비공식, 시장/국영부문의 네 가지 영역을 기본축으로 하여 직행파 탈북이주민 23사례를 성별/일자리유형별로 여성 11사례, 남성 12사례로 나누어 북한 내부에서 노동이동의 흐름과 탈북요인을 분석하였다.

북한내부에서 연구참가자들의 노동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북한내부에서의 직업이동의 방향은 공식부문 국영경제(Ⅰ)에서 공적시장경제부문(Ⅱ), 비공식 국영경제(Ⅲ), 비공식 시장경제(Ⅳ)영역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국영경제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시장경제 영역의 일자리 혹은 벌이를 향해 이동하는 경향성이 뚜렷하다. 그렇지만 국영경제부문에서 배치된 직장에서 이동하지 않고 집단적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도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자발적 노동이동 유무에 따라 사례들을 집단노동참여유형과 개인이익추구유형의 두 가지로 대별하였으며, 다시 이들을 상향이동 여부 및 이동의 정착지에 따라 경력추구형, 직업유지형, 장마당형, 정권기관형, 기업활용형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노동이동 유형별로 탈북사유를 분석한 결과, 이들에게는 북한에서 밀어내기 요인과 한국으로 가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유인요인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집단노동참여유형에게는 북한당국의 탄압 등 밀어내기 요인(push factor)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개인이익추구형에게는 밀어내기 요인과 더불어 한국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탈북에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자신감의 근거에는 북한 내에서 했던 노동이동의 경험이 작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탈북이주 과정이 북한내부에 한정되었지만 공간적 범위를 중국내 탈북자들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면 이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내 ‘노동이동’의 활성화가 직행탈북이주자의 탈북행위를 추동하는데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이주자 중에 직행파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계속 줄어드는 상황을 미루어볼 때, 아직 북한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체제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는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백 명의 탈북 직행파의 발생이나 극소수 고위급탈북자의 탈북을 근거로 수년 내 북한체제가 당장 붕괴하거나 급변사태의 전조라고 해석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기보다 넌센스에 가깝다. 그러나 향후 북한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직행파, 특히 개인이익추구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은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탈북추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접수: 5월 8일 ■ 심사: 5월 15일 ■ 채택: 6월 15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명규.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파주: 창비, 2012.
-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이금순. 『북한 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장지연·김화순. 『통일한국의 노동시장과 여성고용 및 일·가정양립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조한범·임강택·양문수·이석기.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부문에 미치는 영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Borjas, George J. *Labor Economics*. 4th Edition. Mc Graw-Hill Press, 2008.
- Castles, Stephen, Mark J. Miller, and Giuseppe Ammendola,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2013.

-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Ehrenberg, Ronald G., and Robert S. Smith, 한홍순·김중렬 역. 『노동경제학』. 서울: 교보문고, 2003
- Clairee Wallace, Christian Haerpfer and Rossalina Latcheva. *The Informal Economy in East-Central Europe 1991-1998*. Vienna: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2004.

2. 논문

- 강주원. “중조 국경도시 단동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구성렬. “통일이후 남북한 인구이동 전망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세미나. 1997. 11.
- 김성경. “경험되는 북·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 넘기와 초국적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 『공간과 사회』. 제22권 2호, 2012.
- 김화순. “북한주민의 일자리 유형.”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1호, 2012.
- . “시장화시기 북한의 일자리유형 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 이상준. “러시아 시장개력과 노동시장의 형성: 노동력의 이동과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통권 104호, 2004.
- 이희영. “(탈)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 전재식. “청년층의 취업형태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노트 02-1, 2002.
- 정병호. “냉전 정치와 북한 이주민의 침투성 초국가 전략.” 『현대북한연구』. 제17권 1호, 2014.
- Chiswick, Barry R. “Are immigrants favorably self-selected? An economic analysis.” *IZA Discussion Paper*. No. 131. 2000.
- Sullivan, Sherry E. “The changing nature of careers: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management*. Vol. 25, No. 3. 1999.

<부록-1> 남성연구 참가자들의 탈북사유

직종		남자	탈북사유
집단노동참여형	경력추구형	사례 1 기업소 행정간부	개인과 북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사례 2 의사	친구의 탈북으로 인한 감시
		사례 3 인민위원회 부원	진로가 막혀서
		사례 8 노동자 겸 세포비서	자녀의 탈북
		사례 9 지방산업 노동자	북한의 미래가 안 보여서
		사례 11 러시아파견노동자	감시
	직업유지형	사례 6 운전기사	친척의 탈북
		사례 7 기술자	북한의 미래가 안 보여서
개인이의추구형	생계형장사	사례 10 중국취업(불법)	처벌의 두려움과 신변안전
		사례 12 현실체험자	사촌의 탈북후 진로가 막혀서
	정권기관외화별이	사례 4 금광개발업자	기관간부들이 성녹화물 등 단속에 걸려서
	기업활용형	사례 5 사진업자	미상
합계			12

<부록-2> 여성연구 참가자들의 탈북사유

			이동	탈북사유
집단노동참여형	경력추구형	사례 2 연합기업소 부기	I ×	가족
		사례 3 무역관련 간부	I → II (비자발적 이동, 신변 안전을 위해(사고 대비) 국가명령)	
	직업유지형	사례 9 여맹위원장	I ↔ IV	탈북한 딸을 찾으러 갔다가 구속
		사례 10 편의사업소	I ↔ IV	미상
개인이의추구형	생계형장사	사례 4 밀무역상	I → IV	화폐개혁 충격과 장사를 위해 좋은 조건을 찾아
		사례 5 미용사	I → IV	김정은 이후 북한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되어
		사례 6 되거리꾼	I → IV	화폐개혁, 아들의 수배, 추방, 사업이 안됨
		사례 7 담배제조업자	I → IV	미상
		사례 8 연유상	I → IV	본인과 남편의 진로가 다 막혀
	정권기관형	사례 1 외화별이 부기	II	회사일로 인한 사고
	기업활용형	사례 11 철강판매업자	I → IV → III	개명한 세상에서 살고자
합계				11

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scaping from North Korea and Labor Mobility of ‘Jikhaeng’ Migra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Wha-Soon Kim

This study assumes that ‘labor mobility’ of North Koreans is one of the major causes of North Korean Defections, and examines the phenomenon of North Korean Migrants in light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theor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newly emerging “generation escaping directly from North Korea” after food refugees and sought to examine their escape process in the context of labor mobility. With the four pillars of the formal/informal, market/state sector that divide the social economy of North Korea as basic axis, 23 cases of migrants directly escaping from North Korea were divided into 11 cases of women and 12 cases of men by type of gender/occupation. There are three facts revealed through this study.

First, it was observed that the workers who worked in the North Korean formal economy sector (I) shifted to the public market economy sector (II), the informal state economy sector (III) and the informal market economy sector (IV). Workers in the state economy shifted to the difficulties of livelihood and showed different behaviors for men and women.

Second, North Korean worker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such as the collective labor participation type and the personal benefit pursuit type according to whether there was labor mobility or not. The collective labor participation type was differentiated into the career-seeking type and the job-keeping type depending on the upward mobility.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formal option, the personal benefit pursuit type was differentiated into the *jangmadang* type, the Party-State Agency type and the corporate utilization type, deriving the five types of labor mobility typ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uses of North Korean Migrants by labor migration types, it was found that the collective labor participation type which comprises the family members, relatives and acquaintances of the North Korean Migrants. Therefore, the surveillance received from the authorities, the personal anxiety due to non-socialist censorships, career barriers of the migrants and family members, negative prospects for the future of North Korea affected the decision of North Korean defections.

In the case of the personal benefit pursuit type, besides the same reason as the collective labor participation type, the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market economy affected the decision to defect. It can be concluded that experience in labor mobility in North Korea promotes defection by forming a friendly attitude toward the market economy.

Key Words: Labor mobility, ‘Jikhaeng’ Migra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North Korean Society, North Korean residents, North Korean Migrants Escaping Directly from North Korea, North Korean Migrants Escaping from North Korea